



영하 40도의 나라에서도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아이스크림’만 판매하는 가판대

겨울도 그냥 겨울이 아닌 연중 절반이 혹한인 나라. 러시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아이스크림만을 판매하는 가판대가 있다. 이곳에서는 수십여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며 한겨울에도 길거리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추억의 맛, 향수의 맛

아이스크림은 현대 문명의 산물로 오해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별미로 기록되어 있다. 이른바 ‘셔벗’이라고 하는 빙수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우유 베이스의 아이스크림은 13세기경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들춰봐야 할 정도이다. 이후 18세기경 유럽을 돌고 돌아 마침내 러시아로 유입되고 소련 시기가 되어서야 대중적인 간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1936년 당시 볼셰비키 당원이자 소련 최고회의장인 ‘아나스타스 미코얀’은 미국 출장 중에 미국 내 아이스크림 수요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 아이스크림을 대량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아이스크림 소비를 장려하였다.¹ 이후 거리에는 아이스크림 판매원들이 등장하였고 대중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련 붕괴 이후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곁을 지키며 국민 간식으로 각인되었다.

품질은 당시 구소련 국가표준(GOST)에 맞춰 생산되었으며 천연 우유, 크림, 설탕, 달걀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유지방 함량이 높으며 매우 달콤한 건강한 간식이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맛과 모양의 수입산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다.



▲ 소련시절 아이스크림 포스터
(건강에 좋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함유)

1 <http://mintorgmuseum.ru/vocabulary/190/>
2 <http://www.filevskoe.ru/interest/vidy-morogenogo/>
3 <https://crispy.news/2020/07/27/business/issledovanie-pokazalo-kakoe-morozhenoe-samoe-ljubimoe-v-2020-godu/>
4 <https://iom.anketolog.ru/2019/05/06/narodnyj-rejting-vkusov-i-raznovidnostej-morozhenogo>

지방 함량이 낮고 단맛이 적게 나는 새로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또 소련 시기 대비 완화된 국가표준(GOST-R)으로 합성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이 출시되면서 맛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러시아인들에게 그 시절 '소련의 맛'은 향수로 남아 있다.

인기순위 1-10위 제품



흔히들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바닐라맛, 초코맛, 딸기맛 이외의 과일맛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유지방 함량에 따라 우유맛(0.5-7.5%), 크림맛(8.0-11.5%), 플롬비르(12-20.0%), 외 초코/과일맛 등으로 구분한다.²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기제품 30개 중 23개 제품이 '플롬비르'였고,³ 수입제품 단 3개만이 30위권 안에 들었다. 유지방 함량이 높은 '플롬비르'는 느끼한 맛이라기보다는 보다 풍부한 우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보통 유지방 함량이 10% 내외이다.

국민 간식 아이스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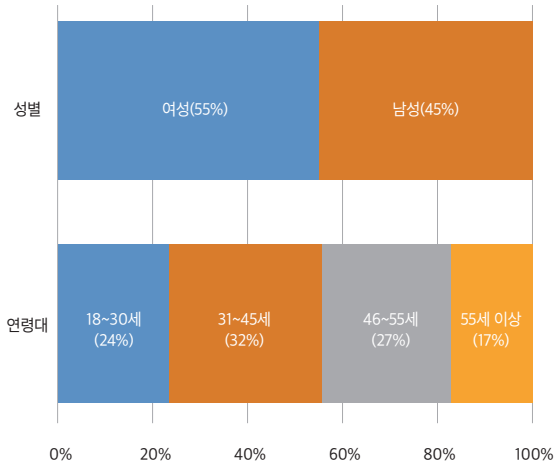
남성들은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편견일까?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성별에 큰 상관 없이 달콤한 간식을 대표하는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연령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이렇듯 러시아인들의 자국산 아이스크림에 대한 애정이 깊지만 그렇다고 수입산 제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수입총액은 4,360만 달러로 당해 국내 생산량의 약 3% 수준, 2019년에는 4,710만 달러로 국내 생산량의 약 4%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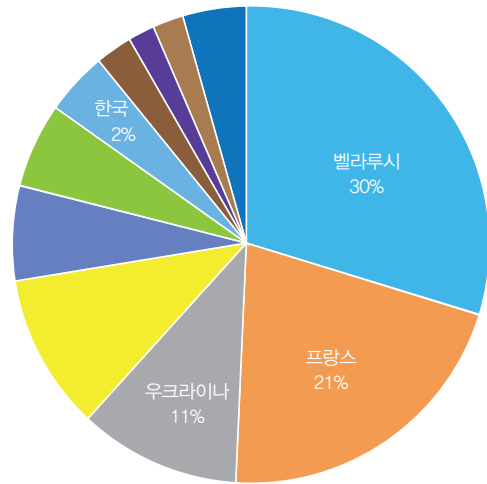
[러시아 인기순위 아이스크림 1 - 10위 제품]

1위	공동 3위	공동 3위	공동 5위	공동 5위	6위
제조사 코로브카 이즈 코레노프키 제품명 플롬비르 와플컵 용량 100g	제조사 졸로토이 스탠다 르트 제품명 플롬비르 샌드위치 용량 69g	제조사 코로브카 이즈 코레노프키 제품명 플롬비르 크림브릴레 용량 100g	제조사 코로브카 이즈 코레노프키 제품명 플롬비르 에스키모 용량 70g	제조사 나스토야쉬 플롬비르 제품명 바닐라 플롬비르 용량 80g	제조사 블로고드스코예 모로체노예 제품명 플롬비르 라쿰카 에스키모 용량 80g
7위	8위	9위	공동 11위	공동 11위	12위
제조사 블로고드스코예 모로체노예 제품명 플롬비르 초코 와플콘 용량 100g	제조사 나스토야쉬 플롬비르 제품명 플롬비르 브리켓 와플 용량 80g	제조사 사라파노보 제품명 바닐라 플롬비르 용량 220g	제조사 블로고드스코예 모로체노예 제품명 플롬비르 와플컵 용량 100g	제조사 스니커스 제품명 스니커스 용량 48g	제조사 코로브카 이즈 코레노프키 제품명 플롬비르 에스키모 용량 70g

[러시아 성별, 연령대 아이스크림 선호도 조사]



[러시아 아이스크림 주요 수입국가 비율]



주요 수입국은 벨라루시, 프랑스, 스위스, 우크라이나, 스페인으로 이들 상위 5개국의 수출액 합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유럽국가이다. 여기에 2014년부터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이후 물량도 점차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30만 달러로 8위에 올랐다.⁵

또 업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산 아이스크림의 수출금액이 국내 생산량의 4~5%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이다. 즉 수입량과 수출량에 큰 차이가 없어 국내 생산량만으로 국내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⁶ 참고로 올해 5월까지 러시아 국내 아이스크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한 약 18만톤, 여기에 소비량은 약 17만톤으로 집계되었다.⁷

아이스크림이 국민 간식으로 존재하는 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러시아 아이스크림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아이스크림 판매 성수기 이전인 봄에 발생하여 실제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는 오히려 이동이 제한되어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의 소비를 촉진시켰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주요 제조업체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산라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없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⁸

Key Point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적 특성에 기인하여 유럽산 제품은 주로 유럽 러시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면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시베리아부터 극동까지 유럽산 제품보다 한

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이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세관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 경로가 주로 극동, 사할린, 하바롭스크 등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거점으로 앞으로 시베리아, 유럽 러시아로 나아가기 위하여 마케팅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아이스크림에 ‘라벨링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여 내년 1월 21일부터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라벨링 시스템’이란 각각의 제품 생산시 해당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추적 가능한 고유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모조품 방지를 목적으로 2019년 도입,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체인 유니레버 러시아(Unilever, 브랜드명 Inmarco)는 러시아 농업부에 중량이 100g 미만인 제품에 대하여 이와 같은 ‘라벨링 시스템’ 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의 90% 가량이 중량 100g 미만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조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법적 조치는 우리 기업 수출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 5 <https://ru-stat.com/> (HS CODE 2105 00)
- 6 <https://t-laboratory.ru/2019/06/06/obzor-rynka-morozhenogo/>
- 7 <http://foodmarket.spb.ru/current.php?article=2726>
- 8 <https://ria.ru/20200601/1572267280.html>

출처 : ❶ <http://mintorgmuseum.ru/vocabulary/190/> ❷ <http://www.filevskoe.ru/interest/vidy-morogenogo/> ❸ <https://crispy.news/2020/07/27/biznes/issledovanie-pokazalo-kakoe-morozhenoe-samoe-ljubimoe-v-2020-godu/> ❹ <https://iom.anketolog.ru/2019/05/06/narodnyj-rejting-vkusov-i-raznovidnostej-morozhenogo/> ❺ <https://ru-stat.com/> ❻ <https://t-laboratory.ru/2019/06/06/obzor-rynka-morozhenogo/> ❼ <http://foodmarket.spb.ru/current.php?article=2726> ❽ <https://ria.ru/20200601/1572267280.html> ❾ <https://nastroyenietv/episode/149267> ❿ <https://www.dairynews.ru/news/eksport-morozhenogo-iz-yuzhnoy-korei-vyros-na-11.html> ⓫ <https://sobesednik.ru/obshchestvo/20190514-babe-cvety-detyam-morozhenoe> ⓬ <https://milknews.ru/longridy/rynok-morozhenogo-v-rossii.html> ⓭ <https://vyborok.com/rejting-samogo-vkusnogo-morozhenogo-v-rossii/> ⓮ <https://iz.ru/1053526/evgeniia-pertceva/vozmut-kholodom-biznes-predupredil-o-roste-tcen-na-morozhenoe-v-2021-godu> ⓯ <https://ru.wikipedia.org/wiki/%D0%9C%D0%BE%D1%80%D0%BE%D0%B6%D0%B5%D0%BD%D0%BE%D0%B5> ⓰ <https://raven-yellow.livejournal.com/252172.html> ⓱ <https://store.anketolog.ru/2018/08/03/issledovanie-potrebitel-skih-predpochtenij-na-rynke-morozhenogo2>